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준희¹, 김상욱^{2*}

¹위어피어지앤지 연구소, ²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Jun-Hee Lee¹, Sang-Wook Kim^{2*}

¹Weappear G & G Research Institute

²Division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에서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분배를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공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순환 요소를 발굴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가정신의 구성변인으로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사회적 목적 추구를 추가하여 각각의 요인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독립변수로 구분된 기업가정신과 종속변수인 사회적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 분석을 위해 2개의 대가설과 8개의 소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는 기업가의 진취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는 기업가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at entrepreneurial elements of social enterprises contribute to the virtuous cycle to lay a foundation of the coevolution with communities through growth and wealth distribution. To this end, the study was started by adding the pursuit of social goals to the components of entrepreneurship, namely an innovative mind, progressive spirit, and risk sensitivity, and the effects of each of these factors on their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social performance were examined. Within this framework,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enterprises' performance in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s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entrepreneurial elements as independent variables were examined by correlation test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two hypotheses and their 8 subsequent hypothe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ntrepreneurs' progressive spirit had a statistically meaning effe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and an innovative mind and risk sensitivity are influential variables for social performance.

Keywords :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elements, social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신 빈곤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필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정감(empathy)과 사회적 변혁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그간의 사회적 기업관련 연구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가?’[1] 혹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2] 등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가들에 대한 역량모델을 개발하고[3], 사회(형평)·경제(효율)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4].

*Corresponding Author : Sang-Wook Kim (Chungbuk National U.)

Tel: +82-10-5465-4432 email: sierra@cbnu.ac.kr

Received December 14, 2016

Revised (1st February 11, 2016, 2nd March 3, 2016, 3rd March 18,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는 공통적으로 ‘열정적이고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지닌 기업가정신’이 있다 [5]. 최근 기업의 사회적 변화대리인(change agent)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 및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성장과 분배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진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순환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많은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로 제시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사회적 목적추구를 추가하여 각 요인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2. 선행연구

2.1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연구는 기업가 활동을 ‘창조적 파괴’로 규정한 슈페터의 세계관을 모태로 1930년대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에서 시작되었다[7]. 그 후 기업가에 대한 행동과학적 연구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러 경영학의 한 분과로 자리하게 되면서, 창업에서부터 성장, 폐업에 이르는 기업가적 프로세스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혹은 생태계)에 대한 연구로 진화된다[8].

Economic Context)	Behavioral Sc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inly economists ■ Entrepreneurship is one of market functioning ■ A Principled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entrepreneu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inly Organizational scholars, sociologists ■ Focusing on the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an entrepreneur? ■ What is the motivation to become an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rocess	Social Cont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inly Management scholars, strategy scholars ■ Management Science (Business Administration) perspective ■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entrepreneurial process(ready-to-startup - start up -growth -close of 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inly management scholars, sociologists, european scholars ■ Entrepreneurial ecosystem Research ■ Research on the context (environmental factors), which leads to entrepreneurial activity

Fig. 1.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정신의 새로운 유형이다 [9]. 그러나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가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10]. 다만 경제적 부의 창출이 목적인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

과 사회문제 해결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에 차이가 있다.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명(Mission)을 택한다[6]. 이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인식하며 지속적인 혁신, 적응, 학습의 과정에 종사한다.

사회적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는 대부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 3가지 측정변수를 사용한다[11,12]. 혁신성은 새로운 방법 혹은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거나 조직 혹은 기업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위험감수성이란 사회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실패의 가능성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 진취성은 시장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통한 우월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 다른 조직들보다 선제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 등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가치 창출 의지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의 특징을 보이며[13],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한다[14]. 따라서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지향성과 사회적 목적추구성 등이 기업가정신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5,16].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깔려 있다.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목적과 접근방식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기업의 목적 면에서 볼 때 영리기업이 수익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한다. 접근방식에서는 영리 기업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추구는 동기부여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성과측정에서 매출액, 시장점유율, 투자수익률, 성장률 등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소비자 고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기업가정신에서도 사회적 가치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2.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17]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가들은 아직 사회적 목적 추

구나 혁신성에 대한 인식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경제적 성과보다는 사회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게 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표본 통계 결과로 볼 때 사회적 기업가의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기업의 종류(인증/비인증), 권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된 기업이 경제적 성과에, 비수도권 기업이 사회적 성과에 보다 높은 효과를 보였다.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15]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해당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업가정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8].

한편 사회적 기업 성과를 조직차원에서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여 시행한 연구[19]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적 성과가 기업가정신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20]에서는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과 인적 네트워크가 공익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도입하여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직무만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 결과는 인센티브와 같은 외적 동기보다는 구성원 스스로 사회적 소명을 수행한다는 내적 동기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성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시행되었지만, 한 가지 수렴점은 기업가정신의 요소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지향성을 채택하고 있으며, 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앞서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기업가정신 간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적용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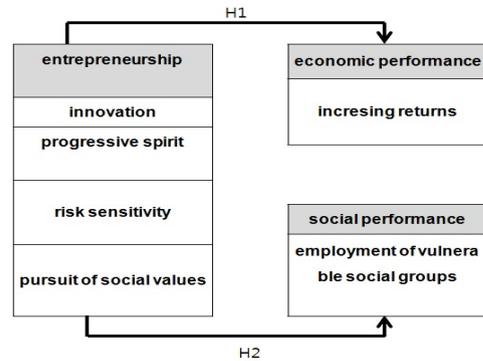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세부 측정항목으로는 독립변수로 기업가정신요소 5개 항목을, 종속변수로는 최무현 외[22]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투자수익증가율)와 사회적 성과(취약계층고용율)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사회생태계는 공진화(co-evolution)를 기반으로 하는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을 핵심가치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추구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각 변수가 정부 인증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이로부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요소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사회적 공익성과 사업적 경제성이라는 이율배반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의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였다.

3.2 연구가설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성장과 분배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공진화 기반 구축을 위한 선순환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기업가정신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와 관련성을 검증하는 2개의 대가설과 그 하위에 4개씩 모두 8개의 소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기업가정신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 혁신성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 진취성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 위험감수성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 사회적 가치추구는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 혁신성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 진취성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 위험감수성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 사회적 가치추구는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측정변수의 정의 및 설문지 구성

3.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를 위해 독립변인으로 선정된 4개 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혁신성은 기업성장과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품생산의 새로운 기술혁신과 새롭게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경영관리활동을 의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개발을 목표로 한 실험과 창조적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것을 기꺼이 도입하는 기업의 성향으로 정의한다.

진취성은 변화의 인식과 자발적인 경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기업 환경 변화창출과 미래 수요의 예상 활동 및 경쟁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쟁자를 제압하는 자발적인 기업가적 자세로 정의한다.

위험감수성은 기업이 새로운 사업성공의 확신이 없을 지라도 과감하게 활동해서 기꺼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가치추구는 사회적 목적(사회적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한다.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2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경제적 성과는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을 반영하여 사회적 기업이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의 결과로 정의한다[2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재무적 성과로서 수익증가율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성과란 사회적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및 사회공헌의 달성정도로 정의한다[23].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으로 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취약계층고용기여를 지표로 채택하였다.

3.3.2 설문지 구성과 분석자료 수집

연구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모델에 반영된 가설별 리커트 5점 척도로 지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은 표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등록된 인증 사회적 기업을 주요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하였다. 전국에 분포된 정부인증 사회적 기업 중에서 25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메일과 우편 송부, 방문을 통하여 총 22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답변이나 빠진 항목이 있는 설문지 등을 제외하고 200부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기초통계량 분석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70.0%, 여성 30.0%로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많았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34.0%, 30대가 24.0%, 40대가 35.0%, 50대가 7.0%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 8.0%, 전문대졸이 47.0%, 대졸이 45.0%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이상의 석사, 박사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

직급의 경우 대표가 72.0%, 임원이 21.0%, 종사자가 7.0%로 나타나 대표자와 임원이 주로 응답자로 조사되었다.

조직의 형태로 볼 때 사단법인이 2.0%, 재단법인이 4.0%, 사회복지법인이 2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2.0%, 상법에 따른 회사 30.0%,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3.0%, 비영리민간단체가 2.0%, 민법상조합 18.0%, 협동조합이 18.0%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33.0%, 사회서비스제공형 12.0%, 지역사회공헌형 6.0%, 혼합형이 4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2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들의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항목으로 판정된 설문항목들을 제외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업가정신 요인분석 결과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추구 등 4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고유값이 1.193 이상으로 나타나 응집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입력변수 간 편상관 정도를 가능하는 KMO(Keiser-Meyer-Olkin) 값이 .855로 나타나 변수의 수와 표본의 수가 적절한지 알 수 있는 표본적합도(KMO>0.8)가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Bartlett의 검정결과는 $\chi^2=1136.31(p=.000)$ 로 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함($p<0.05$)을 확인하였다. 판별타당성 차원에서 본 설명력은 64.53%로 나타났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Factor*	Sub-variables	1	2	3	4	total	Var.%	Cum.V ar.%
RT	Risk Taking 3	.852	.077	.205	-.031	2.561	23.281	23.281
	Risk Taking 2	.702	.303	.118	.118			
	Risk Taking 4	.634	-.040	.206	.106			
PS	Progressive Spirit 1	.061	.805	.128	.122	1.770	16.093	39.374
	Progressive Spirit 2	.217	.733	.077	.119			
IM	Innovative Mind 2	.398	.251	.715	.093	1.574	14.312	53.687
	Innovative Mind 1	.522	.143	.666	.098			
	Innovative Mind 3	-.272	.454	.592	.055			
SV	Social Value Oriented 3	.448	-.050	-.064	.649	1.193	10.848	64.535
	Social Value Oriented 1	.347	.292	.112	.607			
	Social Value Oriented 2	.252	.329	.363	.572			

*RT: Risk-Taking, PS: Progressive Spirit, IM: Innovative Mind, SV: Social Value Oriented

아래 표(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도를 가늠하는 크론바하 값(Cronbach's alpha)은 위험감수성이 .769, 진취성이 .724, 혁신성이 .680, 사회적 가치추구가 .639로 나타났으며. 성과변인의 경우는 .630으로 분석되어 신뢰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performance

Variables	Sub-variables	Cronbach's alpha
Social Performance	Employment of vulnerable social groups	.630
Economic Performance	Increasing returns	

4.3 기업가정신과 경제적 성과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가 활용되었으며, 양측검증 방법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Table 3. Entrepreneurship-Economic Performance Correlation

Variables	1	2	3	4	5	6
1. Entrepreneurship	1					
2. Innovative Mind	.761**	1				
3. Progressive Spirit	.671**	.401**	1			
4. Risk-Taking	.762**	.440**	.262**	1		
5. Social Value Oriented	.773**	.434**	.345**	.521**	1	
6. Economic Performance	.363**	.254**	.320**	.254**	.250**	1

* p<.05, ** p<.01, *** p<.001

기업가정신과 경제적 성과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363($p<.01$)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정신 하위변인의 경우에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추구의 경우에 각각 .254($p<.01$), .320($p<.01$), .254($p<.01$), .250($p<.01$)으로 나타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tem	B	S.E	β	t	p
(constant)	1.487	.390		3.814	.000
Entrepreneurship	.573	.105	.363	5.476***	.000

$R^2=.132$ Adjusted $R^2=.127$ $F=29.992$ ***

* p<.05, ** p<.01, *** p<.001

기업가정신이 경제적 성과에 끼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beta=0.363$ 로 유의수준 $p<0.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에 있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12.7% (R^2)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정신과 경제적 성과 간에 상관관계는 있으나, 그 설명력은 미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tems	B	S.E	β	t	p
(constant)	1.427	.394		3.624	.000
Innovative Mind	.092	.096	.076	.950	.343
Progressive Spirit	.276	.088	.232	3.135**	.002
Risk-Taking	.133	.089	.121	1.500	.135
Social Value Oriented	.088	.099	.073	.896	.371

$R^2=.143$ Adjusted $R^2=.125$ $F=8.107***$

* $p<0.05$, ** $p<0.01$, *** $p<0.001$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인들이 경제적 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진취성의 경우에만 표준화계수 $\beta=.232$ 로 나타나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하위변인들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성과의 관계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Table 6)에 정리된 바와 같다.

Table 6. Entrepreneurship-Social Performance Correlation

Variables	1	2	3	4	5	6
1. Entrepreneurship	1					
2. Innovative Mind	.761**	1				
3. Progressive Spirit	.671**	.401**	1			
4. Risk-Taking	.762**	.440**	.262**	1		
5. Social Value Oriented	.773**	.434**	.345**	.521**	1	
6. Economic Performance	.204**	.227**	.114	.205**	.055	1

* $p<0.05$, ** $p<0.01$, *** $p<0.001$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성과의 상관관계수는 .204 ($p<0.01$)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기업가정신과 하위변인과의 관계는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에서 각각 .227($p<0.01$)과 .205($p<0.01$)로 나타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진취성과 사회적 가치추구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tem	B	S.E	β	t	p
(constant)	2.530	.372		6.799	.000
Entrepreneurship	.293	.100	.204	2.933**	.004

$R^2=.042$ Adjusted $R^2=.037$ $F=8.602**$

* $p<0.05$, ** $p<0.01$, *** $p<0.001$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성과에 끼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beta=.204$ 로 나타나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정(+)의 관계에 있으나, 회귀식의 설명력(R^2)은 3.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기업가정신보다는 다른 변수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8.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tems	B	S.E	β	t	p
(constant)	2.542	.371		6.851	.000
Innovative Mind	.210	.091	.191	2.306*	.022
Progressive Spirit	.040	.083	.037	.477	.634
Risk-Taking	.181	.084	.181	2.162*	.032
Social Value Oriented	-.147	.093	-.135	-1.586	.114

$R^2=.077$ Adjusted $R^2=.058$ $F=4.082**$

* $p<0.05$, ** $p<0.01$, *** $p<0.001$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인들이 사회적 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혁신성의 경우 표준화계수 $\beta=.191$ 로 나타나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정(+)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혁신성과 사회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227($p<0.01$)로 유의미하고 회귀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위험감수성의 경우에도 표준화계수 $\beta=.181$ 로 나타나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험감수성과 사회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수가 .205($p<0.01$)로 유의미하고 회귀분석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러나 진취성, 사회적 가치추구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기업가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사회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혁신성은 사회적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의 적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혁신성은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 동원방식과 이해관계자들과 결합되는 조직의 운영구조를 창출하는 역동성과 관련이 있다. 위험감수성

은 조직의 운영 및 지배구조, 새로운 사업의 확장 등의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24].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이윤이 재투자자를 통한 취약계층고용, 사회문제해결과 같은 공익성 추구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추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이다. 즉, 기업가정신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기업 성과 영향 요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가정신에 주목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선순환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기업가의 진취성이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반면, 사회적 성과의 경우에는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첫째,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 진취성이 중요한데 이는 영리기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가치의 형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치 간 조정과정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따라 사회적 요구와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복합적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의 요구(needs)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궁극적 두 가지 성과, 즉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선순환 피드백 구조를 이루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진취성과 혁신성, 그리고 위험감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추가로 반영된 사회적 가치추구성은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설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성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불

매[24],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가의 사회적 가치추구성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기업가의 사회적 가치추구 사명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 및 교육정책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의 한시적 성격은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기업가의 사회적 가치추구성이 체고되지 않는 한 정부의 보조금이 종료됨과 동시에 고용된 소외계층 인력의 상당수가 퇴출되고 사회적 기업은 결국 일반 영리기업과 차이가 없는 상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의미 있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내적·외적 환경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만큼, 기업가정신의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별 성과와의 관계분석에서 회귀식의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다는 사실은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시사점과 결론들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References

- [1] Y. B. Cho, Understanding of social enterpris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business practices, Ministry of Labor, 2008.
- [2] S. H. Chang, S. S. Ba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Market Orientation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a Social Enterprise", DAEH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23, No.6, pp.3479-3496, 2010.
- [3] S. Y. Park, "Development of competency model for social entrepreneur",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12, No.2, pp.67-87, 2010. DOI: <http://dx.doi.org/10.18211/kjhrdq.2010.12.2.004>
- [4] K. H. Bae, "A Study on the Concept of Social Entrepreneurship: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Vol.15, No.2, pp.199-227, 2011.
- [5] W. H. Lee, "New future social enterprise: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practices", Hankyoreh Economy and Society Research Institute, 2008.
- [6] J. G. Dees, The Mean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Stanford University, 1998.
- [7] M. S. Jung, J. E. Whang, S. Y. Kim, J. C. Hyun, J. M.

Seo,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Services, community, 2012.

[8] Y. J. Lee, Y. H. Kim, S. K. Kim, Y. H. Bae, S. Lim, M. J. Go,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and Its Implications on Korean Start-up Environment," Policy Research 2014-08,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4.

[9] W. Drayton, "The Citizen Sector: Becoming as Entrepreneurial and Competitive as Busines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44, No.3, pp.120-132, 2002.

[10] Brooks, C. Arthur, Social Entrepreneurship, Pearson, pp.2-7, 2008.

[11] S. T. Helm, F. O. Andersson, "Beyond Taxonomy: An Empirical Valid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the Nonprofit Sector",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Vol.20, No.3, pp.259-276, 2010.
DOI: <http://dx.doi.org/10.1002/nml.253>

[12] J. Frishemmar, S.A. Horte, "The Role of Market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for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in Manufacturing Firms", Technology Analysis and Strategic Management, Vol.19, No.6, pp.765-788, 2007.
DOI: <http://dx.doi.org/10.1080/09537320701711231>

[13] J. Weerawardena, M. G. Sullivan., "Investigating Social Entrepreneurship: A Multidimensional Model,"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41, No.1, pp.21-35, 2006.
DOI: <http://dx.doi.org/10.1016/j.jwb.2005.09.001>

[14] A. M. Peredo, M. McLean, "Social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41, No.1, pp.56-65, 2006.
DOI: <http://dx.doi.org/10.1016/j.jwb.2005.10.007>

[15] Y. T.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Social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Vol.18, No.3, pp.129-150, 2011.

[1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Manual, 2015.

[17] M. H. Choi, M. K. Ch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Creativity and Innovation, Vol.6, No.2, pp.29-55, 2013.

[18] N. Y. Kim,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mission and social entrepreneurship on the performance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tart-up incubating supports, Thesis, Graduate School of Small and Medium Industry, Soongsil University, 2012.

[19] S. Y. Nam, Y. B. Lee, "Study on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n Exploratory Empirical and theoretical debates",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2, No.3, p.64, 2013.

[20] K. W. Lee, An Empirical on the Success Factors of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 doctorate thesis, Soongsil University, 2008.

[21] K. H. Bae, S. N. Park, and Y. J. Lee, "The Effe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he parameter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Vol.13, No.3, pp.251-276, 2014.

[22] M. H. Choi, Y. B. Lee, and M. K. Chung, "Empirical analysis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organizational capabilities, leveraging local assets, and performanc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13.

[23] M. R.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Enterprise Managers' Leadership Competency, Business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Network Activiti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Thesis, Honam University, 2012.

[24] J. S. Choi,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Haksuljungbo, 2012.

이 준 희(Jun-Hee Lee)

[정회원]



- 1998년 8월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컴퓨터공학석사)
- 2016년 2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박사)
- 2009년 6월 ~ 2013년 9월 : 에듀아이티 연구소장
- 2013년 9월 ~ 현재 : 위어피어지앤지 연구소장

<관심분야>

지식경영, 시스템 다이내믹스, 사회적 기업

김 상 욱(Sang-Wook Kim)

[정회원]



- 1987년 12월 :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경영학 박사
- 1986년 8월 ~ 1989년 2월 : Kansas State U. 조교수
- 1989년 2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 1998년 9월 ~ 2001년 2월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소 소장
- 2001년 3월 ~ 2003년 2월 : 충북 대학교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 2003년 4월 ~ 2005년 7월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분위원
- 2005년 7월 ~ 2007년 12월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 2006년 4월 ~ 2008년 3월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회장